

이야기 5 : 가나의 혼인잔치

주제말씀
[요한복음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옛날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석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인이 혈레벌떡 뛰어와 잔치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큰일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서 포도주가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잔치 책임자가 찡찡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하인들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근처로 갔어요. 그곳에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들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세요.”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잔치 책임자에게 포도주를 갖다주었어요.

잔치 책임자는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잔치 책임자는 신이 나서 신랑에게 다가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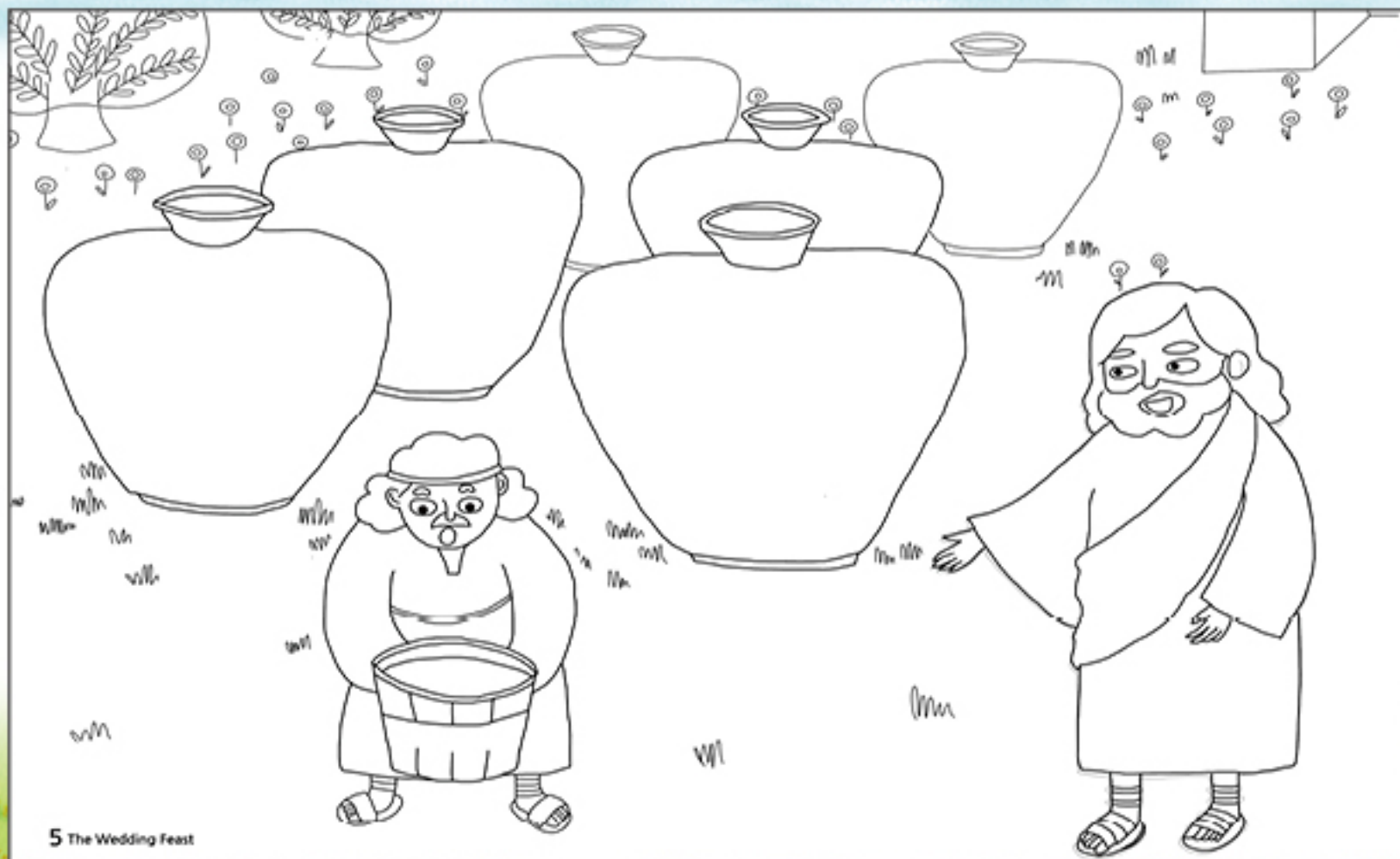
그리고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로 만들어진 최고급 포도주를 기분 좋게 마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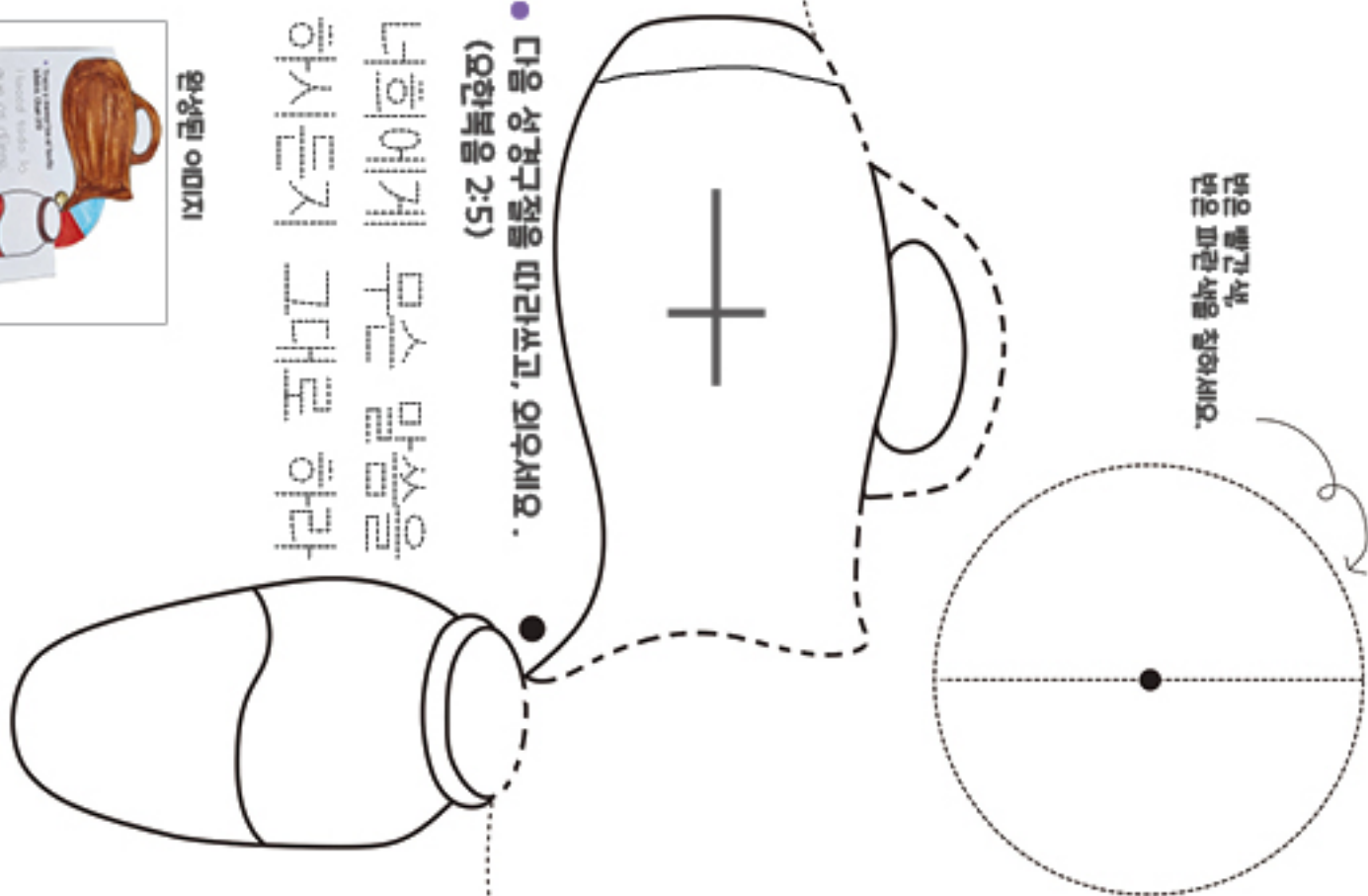
단계 2.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항아리를 만들어 보세요.

1. 그림을 예쁘게 색칠한다. 2. 점선을 따라 종이를 오린다.

3. 동그라미를 아래에 두고 ●모양끼리 겹쳐서 합핀으로 고정 후 원을 돌린다.

반은 빨간색,
반은 파란색을 칠하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우세요.
(요한복음 2:5)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완성된 이미지



준비물: 크레파스, 가위, 합핀

